

# 1-2.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 현 경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 초 록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정신적 장애인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정신적 장애인 근로실태 일반적 특성 분석, 월평균 근로소득 특성분석,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취업 및 직업능력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T검정 및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 장애인 근로실태의 일반적 특징은 남자가 87.7%로 대부분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4%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장애등급은 3급이 56.7%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장애상태는 86.1%가 고착 상태였으며, 직종은 80.0%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직장 내 지위는 일용 근로자가 47.2%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 장애인 월평균 근로소득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등급, 장애기간, 장애상태, 건강상태, 일상생활 만족도, 직종, 지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임금지급방식, 자격증 보유여부 등 총 15개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는 근로지위, 직종, 연령, 장애기간, 평균근무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특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개발 및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녕 및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주제어: 정신적 장애인, 근로특성, 근로소득, 삶의 질, 직업재활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WHO, 2004).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 정신질환자 격리, 수용중심, 장기입원으로부터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의미는 다양하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는 과정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사회통합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금진, 2002).

정신분열병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으로 직업재활 영역을 들었으며(Anthony & Liberman, 1986), 직업재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적 측면이 정신장애인 재활의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 복지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금진, 2003).

그러나 이러한 직업재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심각한 사회적인 편견과 열악한 재활서비스 속에서 제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따르면, 재가 정신장애인의 수는 9만 천명으로 2000년(7만 천명)에 비해 2만 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57%로 2000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0.2%정도 낮아졌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40.0%로 전체장애인 실업률(23.1%)보다 2배정도 높고, 전체 노동시장의 실업률 3.6%(2005년 6월, 통계청)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후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하여, 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이 114.9만원인데 비해, 취업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54.8만원으로서 이것은 일반취업근로자 월평균 임금 258만원(2005년 6월, 통계청)의 21.2%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의 의무고용제(quota system)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실업률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전체 노동시장 안에서 또한 장애인 노동시장 안에서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의 중요성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관련근거제공 연구로써 정신장애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장애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취업특성 등을 파악하고, 둘째, 정신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건강수준별, 취업특성별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며, 셋째,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취업특성이 정신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정신장애인 및 정신적장애인의 개념

###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의 의미를 규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정신장애의 개념이 단순히 병리학적인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문화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 진행과정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사회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문인숙, 양옥경, 1999)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기 전부터 정신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정신장애인이란 증상의 치료적 입장은 물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재활의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며, 전인적 맥락에서 다루어 지게 되었다(이금진, 200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1)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2) 정신적 장애인의 개념

정신질환관련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으며, 이 3가지 장애를 통합하여 정신적 장애라고 정의하였다(보건복지부 고시, 2011). 본 연구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의 범위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3가지 장애를 통합하여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1)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의의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는 생산적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이다(Bitter, 1979).

따라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취업하고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적응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규수, 1999).

또한 경제적 효과측면에서도 볼 때, 미국의 파운틴하우스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파운틴하우스를 통해 임시 취업한 정신장애인들은 1년간 75만불, 독립 취업한 정신장애인들은 86만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결과로 보아 이것은 직업재활서비스로 인해 정신장애 재발방지의 치료적 효과와 사회복귀에 중용한 역할을 갖게 하여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동시에 이들이 경제적인 인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황태연, 1994).

National Alliance for the Mental ill(1999)에 의하면 “일이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지역사회 삶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주요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일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적 지위, 재인식, 동맹,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심리적, 사회적 생산물을 제공한다(Lee E. Isaacson & Duane Brown, 2000).

정신장애인에게도 직업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에게 일은 동기, 자기확신, 구조적 활동, 관계성에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일은 포괄적 정신과적 치료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실제적 성취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둘째,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생산적인 일에 활동적으로 종사할 때 정신과적 증상이 경감된다. 즉 일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거나 대처능력을 촉진시켜 증상의 재발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셋째,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의 주요 지표이다. 즉 일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들은 대인관계능력, 직업기술습득, 증상관리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활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넷째, 일로 인한 임금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산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일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에게도 재활단계에서 직업재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이금진, 2002).

직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입원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만성화 경향으로 인해 직업재활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신분열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기능저하 및 결핍, 사회적 역기능, 자신감 결여, 사회적 고립, 퇴행 등을 경험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한은선, 1996).

또한, 증상이 완화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인이 취업의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업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대인관계나 직업능률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황태연, 1999).

### 3. 선행연구 검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성공 예측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성공예측요인은 성별,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병전직업력 등(Weiner, 1964; Buell & Antony, 1973; Strauss, 1989)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자존감, 동기, 스트레스대처능력 등(Strauss, 1989; Jacobs 1988; Antony et al, 1984)의 심리적 요인, 진단명, 정신적 증상 등(Buell & Antony, 1973; Arns & Linrey, 1995)의 손상측면 장애요인이 있다. 사회환경적 예측요인은 사회적 지지,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 사례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행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개인적 예측요인 보다 사회환경적 예측요인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개입 폭과 변화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수정, 1999; 주소현, 1999; 이금진 2000).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장애인 개인의 인적자원 능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지지체계서비스의 개발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이들 서비스간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정신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는 아직 국내에 없는 상황이며,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임금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임금결정요인에 대해 크게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요인 및 의료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 및 경제활동 요인 등 3~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가구내 지위, 연령, 배우자유무, 자녀수, 가구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적자본 요인에는 학력, 직업훈련, 현직장경력, 월 근로시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요인 및 의료적 요인에는 장애정도와 장애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등급, 장애발생연령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요인 및 경제활동 요인에는 종사직종, 정규직 유무, 일자리 산업내용, 월 근무시간,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 구직경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어수봉, 1995; 이선우, 1997; 권유경, 1998; 조우현, 1999; 유동철, 2000; 이정호, 2002; 강동욱, 2001, 2004; 장현, 2005; 조상미 2010)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대상

연구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2009년 6월 30일 기준 만 15~75세 등록장애인 2,105,891명의 모집단에 대해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1.4%로 표본 5,000명을 지역, 성, 연령, 장애유형으로 층화하여 선정·조사한 후 가중치를 적용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2,105,891명 중 장애유형을 ‘정신적 장애(정신지체장

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응답한 사람 207,546명을 뽑은 후, 그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32,23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변수 및 가설

종속변수는 응답자 개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하였고,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의 3가지 특성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주관적)이고,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의 변수는 장애등급, 장애기간, 장애상태(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일상생활 만족도, 그리고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의 변수는 직종, 지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임금 지급 방식, 자격증 보유 여부로 총 15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건강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취업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설정하였다.

- 1) 사회경제적 특성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건강특성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취업특성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특성, 취업특성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정신적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관련 연구 주요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독립변수		
사회경제적 특성	성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결혼상태	미혼, 기혼, 이혼사별별거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하층, 중층, 상층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장애기간	5년이하, 6~10년, 10년초과
	장애상태 (주관적)	악화된, 고착, 호전됨
	건강상태 (주관적)	매우좋지않음, 좋지않음, 좋은편임, 매우 좋음
	일상생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	직종	단순노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지위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주당 평균 근무시간	18시간 미만, 18~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임금 지급 방식	시간급제, 일당제, 월급제, 실적, 기타
	자격증 보유 여부	없음, 있음

### 3. 자료분석 방법

먼저 변수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수들과 근로소득과의 관련



성을 보기위해 T검정 및 1요인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3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Model I'은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고, 'Model II'는 'Model I'에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Model III'는 'Model II'에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을 추가하여 세 가지 특성 모두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모형별 분석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점검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였는데,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기준인 공차한계가 0.1이하이면서 분산확대인자가 10이상인 변수들은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 모형(Model I~III)을 구성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검증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32,234명 중 '남자'가 87.7%(28,267명)로 대부분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4%(14,941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2.5%(20,149명)로 '기혼'자 30.0%(9,669명)의 2배로 나타났다.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을 보면 장애등급이 '3급'이 56.7%(18,277명)로 가장 많았고, '1급'은 7.9%(2,554명)로 나타났다. 등록일 기준으로 장애기간을 살펴보면 장애기간이 '10년 초과'가 46.3%(14,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장애상태는 86.1%(27,767명)가 '고착'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편임' 및 '매우 좋음'이 65.1%(20,9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에서 직종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80.0%(25,784명)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직장내 지위는 '일용 근로자'가 47.2%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우리나라 정신적 장애인 근로자 특성

변수	카테고리	명(%)
<b>사회경제적 특성</b>		
성	남자	28267 (87.7)
	여자	3967 (12.3)
연령(세)	20~29	8718 (27.0)
	30~39	14013 (43.5)
	40~49	4126 (12.8)
	50~59	5377 (16.7)
	60 이상	1076 (3.3)
교육수준(최종학력)	무학	3114 (9.7)
	초등학교	7941 (24.6)
	중학교	4840 (15.0)
	고등학교	14941 (46.4)
	대학 이상	1399 (4.3)
결혼상태	미혼	20149 (62.5)
	기혼	9669 (30.0)
	이혼, 사별, 별거	2416 (7.5)
사회경제적 지위(주관적)	하층	20229 (62.8)
	중층	11151 (34.6)
	상층	854 (2.7)
<b>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b>		
장애등급	1급	2554 (7.9)
	2급	11404 (35.4)
	3급	18277 (56.7)
장애기간(등록일 기준)	5년 이하	6935 (21.5)
	6~10년	9467 (29.4)
	10년 초과	14938 (46.3)
	무응답	894 (2.8)

변수	카테고리	명(%)
장애상태(주관적)	악화됨	523 (1.6)
	고착	27767 (86.1)
	호전됨	3944 (12.2)
건강상태(주관적)	매우 좋지 않음	531 (1.6)
	좋지 않음	10706 (33.2)
	좋은 편임	17864 (55.4)
	매우 좋음	3134 (9.7)
일상생활 만족도	불만족	3633 (11.3)
	보통	18659 (57.9)
	만족	9942 (30.8)
<b>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b>		
직종	단순노무 종사자	25784 (8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62 (4.5)
	기능종사자(기능원)	2737 (8.5)
	서비스 종사자	2251 (7.0)
지위	일용 근로자	15202 (47.2)
	임시 근로자	7351 (22.8)
	상용 근로자	9681 (30.0)
주당 평균 근무시간	18시간 미만	7727 (24.0)
	18~36시간 미만	4556 (14.1)
	36시간 이상	19951 (61.9)
임금 지급 방식	시간급제	1393 (4.3)
	일당제	6589 (20.4)
	월급제	21466 (66.6)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523 (1.6)
	기타	2262 (7.0)
자격증 보유 여부	없음	28446 (88.2)
	있음	3789 (11.8)
<b>계</b>		32,234 (100.0)

## 2.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을 T검정 및 1요인 분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 1) 사회경제적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

사회경제적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남자’가 53.2만원으로 ‘여자’ 34.8만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0.000$ ), 연령은 30대가 64.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p=0.000$ ).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 7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p=0.000$ ), 결혼상태는 ‘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64.0만원( $p=0.000$ )으로 가장 높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68.8만원(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

장애등급에 따른 월 평균 근로소득 수준은 1급 22.8만원에 비해 2급 49.6만원으로 높았고, 2급에 비해 3급이 55.8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장애기간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5년 이하는 59.2만원, 6~10년은 52.7만원, 10년 초과는 41.9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0$ ), 장애상태는 ‘악화된’으로 응답한 경우(25.0만원)에 비해 ‘고착’으로 응답한 경우(52.0만원)와 ‘호전됨’으로 응답한 경우(47.4만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일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에 비해 ‘보통’,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 3)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직종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기능종사자’가 93.9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0.000$ ), 지위는 ‘상용 근로자’인 경우 74.6만원( $p=0.000$ ),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경우 64.6만원( $p=0.000$ ), 임금 지급 방식이 ‘월급제’인 경우 56.9만원( $p=0.000$ ), 자격증이 있는 경우 58.0만원( $p=0.000$ )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우리나라 정신적장애인 근로자 특성별 월평균 임금

변수	카테고리	월평균 임금(만원)	p-value
사회경제적 특성			
성	남자	53.2	0.000
	여자	34.8	
연령(세)	20~29	33.5	0.000
	30~39	64.8	
	40~49	46.1	
	50~59	47.0	
	60~69	46.1	
교육수준(최종학력)	무학	23.4	0.000
	초등학교	60.4	
	중학교	78.2	
	고등학교	46.4	
결혼상태	미혼	46.1	0.000
	기혼	57.9	
	이혼, 사별, 별거	64.0	
사회경제적 지위(주관적)	하층	41.6	0.000
	중층	68.8	
	상층	40.0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장애등급	1급	22.8	0.000
	2급	49.6	
	3급	55.8	
장애기간(등록일 기준)	5년 이하	59.2	0.000
	6~10년	52.7	
	10년 초과	41.9	
장애상태(주관적)	악화된	25.0	0.000
	고착	52.0	

변수	카테고리	월평균 임금(만원)	p-value
건강상태(주관적)	호전됨	47.4	0.000
	매우 좋지 않음	70.0	
	중지 않음	41.6	
	좋은 편임	61.7	
	매우 좋음	18.4	
일상생활 만족도	불만족	32.4	0.000
	보통	56.1	
	만족	48.1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			
직종	단순노무 종사자	47.9	0.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9	
	기능종사자(기능원)	93.9	
	서비스 종사자	50.8	
지위	일용 근로자	47.4	0.000
	임시 근로자	27.1	
	상용 근로자	74.6	
주당 평균 근무시간	18시간 미만	39.1	0.000
	18~36시간 미만	11.4	
	36시간 이상	64.6	
임금 지급 방식	시간급제	15.4	0.000
	일당제	55.3	
	월급제	56.9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25.0	
	기타	10.5	
자격증 보유 여부	없음	50.0	0.000
	있음	58.0	

### 3. 월 평균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이 발견되었다.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은 총 5개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학력(공차한계: 0.03, VIF: 29.16),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의 장애등급(공차한계: 0.03, VIF:34.84), 장애상태(공차한계: 0.08, VIF:13.30), 건강상태(공차한계: 0.09, VIF: 11.05),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에서 임금지급방식(공차한계: 0.02, VIF: 49.21)으로 나타났고, 해당 변수들을 제거한 후 모형(Model I~III)을 구성하였다.

모형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모형의 R2값은 'Model I'이 0.26, 'Model II'이 0.50, 'Model III'이 0.82로 나타났고, 모형들 간의 유의한 변수와 회귀계수의 경향이 크게 변함이 없어 'Model III'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표 4).

#### 1)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타났다. 성이 남자인 경우, 연령은 20대에 비해 그 이상인 경우, 결혼상태는 미혼에 비해 기혼일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비해 중, 상층인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 2)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등급, 장애상태, 일상생활 만족도로 나타났다. 장애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p=0.000$ ), 일상생활 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보통 및 만족으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 3)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 지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자격증 보유 여부로 나타났다.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비해 기능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직장내 지위에서는 일용 근로자에 비해 상용 근로자가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또한 평균 근

로시간이 많을수록,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월 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표 4〉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카테고리	Model I	Model II	Model III
		B(β )	B(β )	B(β )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여자*			
	남자	17.2 (0.15) <sup>†</sup>	36.0 (0.43) <sup>†</sup>	31.3 (0.37) <sup>†</sup>
연령(세)	20~29*			
	30~39	22.2 (0.28) <sup>†</sup>	6.4 (0.49) <sup>†</sup>	34.2 (0.51) <sup>†</sup>
	40~49	-1.9 (-0.02) <sup>†</sup>	5.6 (0.06) <sup>†</sup>	40.4 (0.45) <sup>†</sup>
	50~59	-3.7 (-0.04) <sup>†</sup>	-36.9 (-0.44) <sup>†</sup>	12.9 (0.15) <sup>†</sup>
결혼상태	미혼*			
	기혼	11.2 (0.13) <sup>†</sup>	16.4 (0.23) <sup>†</sup>	13.8 (0.20) <sup>†</sup>
	이혼, 사별	32.0 (0.22) <sup>†</sup>	47.6 (0.46) <sup>†</sup>	-2.3 (-0.02) <sup>†</sup>
사회경제적 지위(주관적)	하층*			
	중층	25.9 (0.32) <sup>†</sup>	18.8 (0.26) <sup>†</sup>	13.0 (0.16) <sup>†</sup>
	상층	10.7 (0.04) <sup>†</sup>	3.6 (0.02) <sup>†</sup>	14.0 (0.06) <sup>†</sup>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장애기간	5년 이하			
	6~10년		29.5 (0.73) <sup>†</sup>	-12.5 (-0.19) <sup>†</sup>
	10년 초과		12.8 (0.49) <sup>†</sup>	-29.2 (-0.43) <sup>†</sup>
일상생활 만족도	불만족*			
	보통		33.8 (0.37) <sup>†</sup>	20.5 (0.18)
	만족		38.1 (0.44) <sup>†</sup>	31.2 (0.36) <sup>†</sup>



변수	카테고리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beta$ )	B( $\beta$ )	B( $\beta$ )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				
직종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8.8 (-0.32) <sup>†</sup>
	기능종사자(기능원)			-93.0 (-0.57) <sup>†</sup>
	서비스 종사자			-13.0 (-0.12) <sup>†</sup>
지위	일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4.5 (-0.06) <sup>†</sup>
	상용 근로자			49.9 (0.69) <sup>†</sup>
주당 평균 근무시간	18시간 미만			
	18~36시간 미만			5.6 (0.05) <sup>†</sup>
	36시간 이상			27.1 (0.41) <sup>†</sup>
자격증 보유 여부	없음*			
	있음			13.2 (0.15) <sup>†</sup>
F		1382.62 <sup>†</sup>	2106.14 <sup>†</sup>	5462.56 <sup>†</sup>
R <sup>2</sup>		0.26	0.50	0.82
adj. R <sup>2</sup>		0.26	0.50	0.82

B: 회귀계수

$\beta$ : 표준화 회귀계수

\*: 참조변수

<sup>†</sup>: p<0.01

## V. 고찰 및 결론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실업률 및 절반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직업재활의 어려움이 많고, 취업에 성공했을 지라도 직업유지가 어려워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적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영향요인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특성, 취업 및 직업능력관련 특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조사한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32,234명 중 ‘남자’가 87.7%(28,267명)로 대부분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4%(14,941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2.5%(20,149명)로 ‘기혼’자 30.0%(9,669명)의 2배로 나타났다.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을 보면 장애등급이 ‘3급’이 56.7%(18,277명)로 가장 많았고, ‘1급’은 7.9%(2,554명)로 나타났다. 등록일 기준으로 장애기간을 살펴보면 장애기간이 ‘10년 초과’가 46.3%(14,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장애상태는 86.1%(27,767명)가 ‘고착’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편임’ 및 ‘매우 좋음’이 65.1%(20,9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에서 직종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80.0%(25,784명)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직장내 지위는 ‘일용 근로자’가 47.2%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정신적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을 T검정 및 분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사회경제적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남자’가 53.2만원으로 ‘여자’ 34.8만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0.000$ ), 연령은 30대가 64.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p=0.000$ ).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 7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p=0.000$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68.8만원( $p=0.000$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른 월 평균 근로소득 수준은 1급 22.8만원에 비해 2급 49.6만원으로 높았고, 2급에 비해 3급이 55.8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장애기간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5년 이하는 59.2만원, 6~10년은 52.7만원, 10년 초과는 41.9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0$ ), 장애상태는 '악화됨'으로 응답한 경우(25.0만원)에 비해 '고착'으로 응답한 경우(52.0만원)와 '호전됨'으로 응답한 경우(47.4만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일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에 비해 '보통',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③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별 월 평균 근로소득에서는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능종사자'가 93.9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0.000$ ), 지위는 '상용 근로자'인 경우 74.6만원( $p=0.000$ ),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경우 64.6만원( $p=0.000$ ), 임금 지급 방식이 '월급제'인 경우 56.9만원( $p=0.000$ ), 자격증이 있는 경우 58.0만원( $p=0.000$ )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여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은 제거한 후 모형(Model I~III)을 분석하였다. 모형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모형의  $R^2$ 값은 'Model I'이 0.26, 'Model II'이 0.50, 'Model III'이 0.82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이중 'Model III'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타났다. 성이 남자인 경우, 연령은 30대인 경우, 결혼상태는 기혼일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일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②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기간, 일상생활 만족도로 나타났다. 장애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p=0.000$ ), 일상생활 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보통 및 만족으로 갈수록 월 평균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③ 취업 및 직업능력 관련 특성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 지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자격증 보유 여부로 나타났다.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비해 기능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등이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직장내 지위에서는 일용 근로자에 비해 상용 근로자가 월 평균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또한 평균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월 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본 연구결과, 정신적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순서는 근로지위, 직종, 연령, 장애기간, 평균근무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의 일부분은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형렬, 2005), 노

동시장에서의 정신장애인 근로실태와 임금차별에 관한 연구(이금진, 2006), 취업장애인의 임금 결정요인(조상미, 2010)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직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입원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만성화 경향으로 인해 직업재활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신분열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기능저하 및 결핍, 사회적 역기능, 자신감 결여, 사회적 고립, 퇴행 등을 경험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한은선, 1996).

또한, 증상이 완화된 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인이 취업의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업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대인관계나 직업능력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황태연, 1999).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신적장애인의 취업현황 및 월 평균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처음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결과를 대표성있게 제시할 수 있는 전국단위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정신장애인이 더욱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취업률을 올리고, 임금을 상승시키며, 직업유지 및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와 실업, 사회적 편견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의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녕과 경제적 안정,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동욱, 장애인의 임금결정 구조분석, 사회복지정책, 2001
- 강동욱,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4
- 강필수 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2002
- 권유경,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규수,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과제와 대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99
- 남연희 등,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취업의지, 직업 적응능력, 직업환경만족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009
- 문인숙, 양옥경. 정신장애인사회사업, 일신사, 1999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1
- 손명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006
- 심정순 등,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모형분석. 재활복지, 2009
- 어수봉,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노동경제논집, 1995
- 오수정,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금진,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금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2
- 이금진,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2003
- 이금진,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장애인 근로실태와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장애인고용, 2006
-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1997
- 이성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모델과 직업평가 : 직업기능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3
- 이정호, 근로복지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형렬,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인고용, 200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1
- 장현, 장애인의 임금 및 취업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005
- 조상미 등, 취업장애인의 임금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2010

- 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 1999
- 주소현.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유지와 작업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희수.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2000
- 한은선.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연구, 용인정신의학보, 1996
- 황태연.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대학원석사 학위논문, 1994
- 황태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과제와 대책,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세미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999
- Anthony, W.A. The principles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Baltimore Univ. Park Press, 1979
- Anthony, W.A. & Jansen M. Predicting the vocational capacity of cronically mentally ill. American Psychologist. 1984
- Anthony, W.A. & Liberman R.P. The practice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1986
- Arns & Linrey, Relating functional skills of severely mentally ill clients to subjective and social benefits, Psychiatric Services, 1995
- Bitter, J.A.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C.V.Mosby Co. 1979
- Brundtland GH. Mental health in the 21st century.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78(4):411
- Buell & Antony, Demographic characteristic as predictors of recidivism and post-hospital employment, Journal of Counseling, 1973
- Garfinkel PE, Goldbloom DS. Mental health-getting beyond stigma and categori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78:503-505
- Jacobs, H.E. Vocational training 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of chronic mental patients,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88
- Lee E. Isaacson & Duane Brown.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7th ed., Ally & Bacon, 2000
- National Alliance for the Mental ill. Fact sheet. Fact about mental illness and work. 1999 ([www.nami.org](http://www.nami.org))
- Weiner,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rehabilitat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1964
- WHO. Promoting Mental Health. 2004